

요리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장노년 남성 장애인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동동밥상’

“지난주에 배운 계란말이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식구들과 나눠 먹었어요. 늘 집사람이 하던 걸 어깨너머로 보기만 했는데, 직접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최OO 참여자)

장노년 남성 장애인에게 혼자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옵니다. 배우자의 부재, 자녀의 독립, 가족 구성의 변화, 혹은 자신이나 가족의 장애로 인해 돌봄을 책임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밥’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동동밥상’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남성 장노년 장애인들을 위해 기획된 요리 프로그램으로, 2025년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소중한 지원을 통해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부엌은 여성의 공간”이라는 인식 아래, 요리에 익숙해질 기회가 없이 살아온 장노년 남성들에게 요리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지요.

단순히 반찬을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라, 혼자서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립의 감각,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구성해보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동동밥상을 통해 참여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요리를 한다는 것은 곧 생활의 책임을 나누고, 가족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실천이기도 하니까요.

한 번도 들어서지 않았던 주방,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던 조리도구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참여자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삶에 대한 태도와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동밥상은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자립과 돌봄,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며 삶을 가꾸고, 가족과 일상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 이 따뜻한 연습들이 모여, 보다 평등하고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30일, 동동밥상의 수료식 및 공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사람중심 성교육’

특특!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시즌4 부모교육

성과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깊은 의미를 지니는 요소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욕구를 넘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발달과 성장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에 대해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아동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욕구와 감정은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성 이해를 높이고자 ‘특특!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부모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복지관이 2022년부터 4년째 수행기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16일과 30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되어감 성교육연구소’의 정진옥 소장의 진행으로, 발달장애 자녀의 성장을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삶의 변화를 함께 준비해가도록 돕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교육은 ‘사람’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 소장은 성교육이 단순히 남녀의 신체 차이나 생식에 대한 정보 전달을 넘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 남성 여성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며 살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돕는 과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꿔가도록 돕는 것이 성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가 자주 겪는 고민들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자녀가 첫월경이나 몽경을 했을 때 당황스러움, 이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의 불안, 혹은 자신의 감정을 서투르게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 소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가 삶의 한 단계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자녀에게도 이성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친밀감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습하는 일입니다.

정 소장은 강의에서 성교육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타인이 있는 곳에서 생식기를 만지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설명해줘야 하는지, 사회적 규범과 바운더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지,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성과 사랑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발달장애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심한 이해와 지지,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지요. 발달장애인 역시 한 사람의 남성, 여성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이들의 삶에 꼭 필요한 성교육을 꾸준히 이어가며, 당사자와 보호자, 종사자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을 나눈 시간”

유수아 멘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

우리 복지관은 발달장애 아동과 대학생 봉사자를 1:1로 연결해, 교과 학습을 지원하는 멘토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 초등학교 2학년 안 OO 아동과 함께했던 한양대학교 유수아 멘토가 교내 사회봉사 교과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수아 멘토는 외국에서 나와 자라,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한국에 들어온 뒤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따뜻한 도움 속에 자신도 한 걸음씩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 마음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어 멘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OO가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어요. 처음에 수업을 진행하던 상담실에서 OO는 문을 열어둔 채 상담하길 원했어요. 아마도 낯선 어른과 닫힌 공간에 있는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 후, OO가 먼저 ‘문 닫아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작은 한 마디가 깊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상담실 문은 닫히고, OO의 마음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유수아 멘토의 멘토링은 때로는 도전적이었지만, 그만큼 큰 보람과 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OO가 국어책을 읽기 싫다며 책을 밀쳐놓은 적이 있어요. 저는 억지로 읽게 하기보다, 차분히 책을 읽어줬어요. 그렇게 두 페이지쯤 읽었을 즈음에, OO가 조용히 자기가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OO의 말에 저는 기다림이 줄 수 있는 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유수아 멘토는 이 경험을 통해 ‘도움’이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길을 밝혀주는 것임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발달장애 아동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했어요. 무작정 돕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인 저에게 이 경험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는 일도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하잖아요. OO와의 수업을 통해 저는 먼저 귀 기울이고 기다리는 법, 한 발 물러서서 지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정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도요.”

“OO의 웃음, ‘선생님 또 봐요’라는 인사는 지금도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어요. 저는 지금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인권, 우리 일상의 이야기

지난 6월 26일,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되는 ‘차이’와 ‘불편함’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인권감수성에 대해 되새겨보는 자리였습니다.

교육은 현장에서 종종 마주하게 강사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민권 인권강사가 함께했습니다. 정민권 인권강사는 장애 당사자이자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 어린 시선으로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인권의 역사와 개념, 일상 속 차별과


권리, 인권 감수성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인권’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감을 조금은 덜어내고, 일상에서부터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편집자의 말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살다 보면 이 시와 같은 일들을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지만, 그 속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새롭게 보이고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런 경험들 곱씹다 보면, 결국 ‘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쁨을 느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우리 복지관에도 그런 ‘알아감’의 시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교육에 참여한 부모님들, 낯선 주방 일을 배우는 장노년 남성들,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우리 일상 속 인권을 다시 들여다보는 교육의 순간까지. 이번 소식지에는 그런 알아감의 여정이 담긴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삶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며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동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